

쿰란문서에 나타난 멜기세덱 연구

이윤경(이화여대)

1. 들어가는 말

구약에서 멜기세덱은 두 번 등장한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람이 그 돌라오멜 동맹군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떡과 포도주로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הוא כהן לאל עליון/후 코헨 레엘 엘리온)이라 부른다.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개역개정, 창 14: 18b-19a)라고 말한다. 이에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노획물의 십분의 일을 주는 것으로 이 짧은 만남의 서사를 맺는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곳은 시편 110편으로 ‘다윗의 시편’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다. 이 시편에서 멜기세덱은 더 이상 이방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다윗을 표상하는 인물로 제시된

www.kci.go.kr

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불린다. 바로 이 칭호 때문에 신약성서 히브리서는 예수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5:10),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6:20),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7:17)으로 부른다. 멜기세덱이 기독교인의 기억에 매우 강렬한 인물로 남게 된 이유는, 시편 110편에 기반하여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기독교론을 제시하는 상징어로 멜기세덱을 언급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¹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시편을 거쳐 히브리서에 이르면서 전승사적 변화 과정을 거친다. 즉,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살렘 왕이라는 역사적 인물로 처음 등장하고, 시편에서는 다윗을 상징하고, 결국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설명하는 상징적 인물로 등장한다. 이처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역사적 인물에서 상징적 인물로 전승사적 변화 과정을 거친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멜기세덱에 대한 전승사를 추적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중간 단계를 알려주는 쿵란문서이다. 쿵란문서에서 멜기세덱은 1Q창세기 외경(1Q20), 안식일의 노래(4Q401, 11Q17), 그리고 11Q멜기세덱(11Q13)에 등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멜기세덱이 언급되는 쿵란문서를 살펴봄으로써, 구약에서 신

1 심지어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7:13)으로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이런 멜기세덱의 출생에 빗대어 예수 역시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7:16)다고 선포한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신비로운 성격과 영속성을 강조하면서,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하며, 예수의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다고 말한다. 즉, 이는 예수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보다 뛰어난 것을 강조하는 데 사용된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점에서 예수와 비슷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묘사된다. 존슨은 히브리서의 멜기세덱 전승 사용법을 어원에 기초한 유비로 보며, 이 유비법을 유대교의 주석 방법인 게제라 슈바(Gezerah Shawah)로 본다. Luke Timothy Johnson, *Hebrews: A Commentary* (Presbyterian Publishing Corp, 2006), 24. David H. Wenkel, “Gezerah Shawah as Analogy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Biblical Theology Bulletin* 37/2 (2007), 62-68.

약에 이르는 동안 멜기세덱에 대한 전승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그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체를 보았을 때,² 이 세 개의 텍스트는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기에 연대순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본 논문에서는 구약의 창세기와 시편을 먼저 분석하고, 이와 내용상 유사한 문서부터 종파적 성격이 더 두드러진 순서로 제시하고자 한다.

2. 구약성서의 멜기세덱

멜기세덱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창세기 14장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쟁 서사와 멜기세덱을 연결하는 창세기 14장의 자료에 관한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었다.³ 특히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창세기 14장 18-20절을 오래된 자료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거나⁴ 신명기학파의 시기⁵ 혹은 매우 후대로 본다.⁶

-
- 2 서체에 기반한 저작 연대 측정에 관한 기념비적 논문은 다음을 참조하라. F. M. Cross, "The Development of the Jewish Scripts," G. E. Wright (ed.),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Essays in Honor of William Foxwell Albright* (Doubleday, 1961), 133-202.
 - 3 마틴 노트는 "창세기 14장의 자료에 관한 문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완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Martin Noth,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s*, trans. B. W. Anderson (Prentice-Hall, 1972; reprint, Scholars Press, 1981), 28. 창세기 14장의 편집에 관한 이론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빅터 해밀턴, 『창세기 1』 (임요한 옮김), (부흥과개혁사, 2016), 450. 원제는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William B. Eerdmans, 1995).
 - 4 사르나는 멜기세덱 단락을 "원래의 것이며, 후대 삽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Nahum Sarna, *JPS Torah Commentary: Genesis*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1), 109.
 - 5 M. C. Astour, "Political and Cosmic Symbolism in Genesis 14 and Its Babylonian Sources," A. Altmann (ed.), *Biblical Motifs: Origins and Transform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66), 65-112.
 - 6 베스터만은 창세기 14장 1-11절과 12-24절의 최종 결함을 포로기 이후로 본다. Claus Westermann, *Genesis 12-36: A Continental Commentary* (Fortress Press, 1985), 193. 시터스는 기원전 4세기 말로 본다. J. Van Seters, *Abraham in History and Tradition* (Echo Point

엘람 왕 그돌라오멜가 주도한 동쪽에서 온 네 왕의 연합군(시날 왕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고임 왕 디달)은 사해 남부의 다섯 도시 국가(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곧 소알 왕)를 침입한다.⁷ 전쟁의 와중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간다. 아브람은 연합군을 추격하여“처부수고”(מהכות/메하코트; 창 14:17),⁸ 롯을 구출한다. 아브람이 승전하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창 14:7),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창 14:18a). 창세기는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창 14:18b)이라고 묘사한다. 멜기세덱은 아브람과 하나님(창 14:19-20)을 각각 축복하는데, 두 번 모두 ‘엘 엘리온’을 사용한다.

창세기 14:19b

ברוך אברם לאל עליון קנה שמים וארץ /바루크 아브람 레엘 엘리온 코네 샤마임 바아레쯔(사역: 아브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4:20

אל עליון אשר־מן צריך בידך /우바루크 엘 엘리온 아셰르 미겐 짜라이카 베야테카(사역: 네 대적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어 찬송을 받을지어다)

Books & Media, 2014), 296-308.

- 7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상세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헤밀턴, 윗글, 451-454.
- 8 창세기 14:7에서처럼 נכה 동사의 히필 부정사 연계형으로 동일하게 사용된 나머지 어법(삼상 17:57; 18:6; 삼하 1:1; 대하 25:14; 잠 17:10)을 살펴보면, 이 형태는 모두 실제 역사적 전투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어법을 고려하면 창세기 14:7 역시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전투를 상징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www.kci.go.kr

그런데 구약성서에서 멜기세덱이 두 번째로 언급되는 시편 110편에서는 ‘엘 엘리온’이 완전히 사라지고, 야웨로 대체된다. 이러한 신명(神名)의 변화는 단순한 이름의 대체를 넘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 체계의 변화를 반영한다.⁹ 엘 엘리온은 초기 가나안과 주변 고대 근동 종교에서 지극히 높으신 신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였다. 그러나 다윗 왕조와 야웨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왕권 신학적 시편 110편에서는 배타적 계약 관계에 나타나는 신명인 야웨로 대체된다.¹⁰ 이런 신명 교체와 더불어 제왕시로 분류되는 시편 110편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 다윗을 묘사하는 상징어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과 비교할 때,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은 다윗과 동일시된다. 또한 시편 110편 역시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창세기 14장과 비교할 때 시편 110편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제 멜기세덱이 된 다윗은 아브람을 축복했던 제사장 역할을 뛰어넘는다. 멜기세덱-다윗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열방과 싸우고, 그들을 심판하는 자로 묘사된다. 즉,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시온에서 다스리는 단순한 지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와 함께 열방에 맞서 싸우는 천상적 인물로 등장한다. 창세기 14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시편 110편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제시된다.¹¹ 멜기세덱의 용례가 역사적 제사장에서 천상적 제사장으로 변화하

9 이스라엘에서 신명 변화와 그 신학적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 S. Anderson, “El, Yahweh, and Elohim: The Evolution of God in Israel and its Theological Implications,” *The Expository Times*, 128/6 (2017), 261-267.

10 Henry O. Thompson, “Yahweh (Deity),” David Noel Freedman (ed.), *The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Vol. 6: Si-Z (Doubleday: Yale University Press, 1992), 1011-1012.

11 시편 110편의 해석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하경택, “제사장-왕을 통한 야웨의 통치,” 「구약논단」, 23/4(2017), 150-182.

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시편 110편의 다윗은 역사적 인물이지만 멜기세덱의 천상적 기원에 빗대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인물로 변모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시편 110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다.¹²

구약성서에서 두 번 언급되는 멜기세덱은 먼저 역사적인 왕이자 제사장으로 언급되고, 다음으로는 다윗의 모습을 한 천상적 인물로 제시된다. 따라서 창세기 14장에서 시편 110편에 이르는 시기 동안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해석과 기대는 살렘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역사적 인물에서 예루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로 변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은 ‘다윗’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결합하여 인간적인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지 않는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서 천상적인 ‘영원한 제사장’으로 완전히 치환된다. 그렇다면 시편에서 히브리서에 이르는 그 중간 과정에서 멜기세덱이 어떻게 역사적 인물에서 천상적 존재로 변천해 가는지, 제2성전 시대 쿰란문서에 나타난 멜기세덱 표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1Q창세기 외경(1Q20)의 멜기세덱

창세기 외경은 1947년 쿰란 제1동굴에서 발견된 7개의 주요 두루마리 중 하나로 23단으로 이루어진 아람어 텍스트이다. 이 문서는 창

12 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A Historical Commentary*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0), 516-518.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Wm. B. Eerdmans, 2001), 267. Walter Brueggemann and William H. Bellinger Jr. *Psal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세기의 노아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풀어쓴 텍스트(rewritten Bible)이다.¹³ 창세기 외경의 편집연대는 후기 헤로디안 서체¹⁴를 근거로 대개 기원전 25년에서 서기 50년 사이로 본다.¹⁵ 이 텍스트의 편집연대를 추론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회년서와 예녹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학적 의존성을 고려할 때, 창세기 외경의 편집연대는 기원전 1세기 후반부로 추론할 수 있다. 현존하는 창세기 외경의 파편에 나오는 노아와 아브라함 묘사를 통해 볼 때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의 정경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¹⁶

-
- 13 창세기 외경의 문학 양식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Sidnie White Crawford, *Rewriting Scripture in Second Temple Time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2008), 6장. Molly M. Zahn, *Genres of Rewriting in Second Temple Judaism: Scribal Composition and Transmis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5장. 쿰란의 재서술 문학 양식에 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하라. Michael Segal, "Between Bible and Rewritten Bible," M. Henze(ed.), *Biblical Interpretation at Qumran* (Eerdmans, 2005), 10-28.
- 14 크로스는 쿰란문서의 히브리어 서체 연구를 통하여,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기원전 250-150년의 고어체 시기이고, 두 번째는 기원전 150-30년의 하스몬 서체 시기이고, 마지막 시기는 기원전 30년부터 서기 70년의 헤로디안 서체 시기였다. Cross, 윗글, 135-136. 헤로디안 서체의 세부 시기별 특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Ada Yardeni, *The Book of Hebrew Script: History, Palaeography, Script Styles, Calligraphy, and Design* (Jerusalem: Carta, 2002), 174-191. 야르데니는 헤로디안 서체를 "초창기 헤로디안 필기체에서는 이미 중간형과 미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중간 문자의 형태는 다소 짝아지는 경향이 있다. 아래쪽 획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지며, '지붕'(역자주: 글자 윗부분 가로획) 부분은 대체로 오른쪽 위로 기울어지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한다.
- 15 1Q20의 편집연대는 기원전 2세기에서 서기 1세기 사이의 어느 시기에 편집되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야딘은 서체를 근거로 기원전 1세기 말 또는 서기 1세기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본다. Nahman Avigad and Yigael Yadin, *A Genesis Apocryphon. A Scroll from the Wilderness of Judaea. Description and Contents of the Scroll Facsimiles, Transcription and Translation of Columns II, XIX-XXII* (The Magnes Press, 1956), 38. 피츠마이어 역시 창세기 외경의 언어적 분석과 문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기원전 1세기 말에서 서기 1세기 초 사이에 편집되었다고 본다. Joseph, A. Fitzmyer, *The Genesis Apocryphon of Qumran Cave 1* (Biblica et Orientalia, 1966), 25. 슈프만은 기원전 1세기에 편집된 것으로 본다. Lawrence Schiffmann, *Reclaiming the Dead Sea Scrolls: The History of Judaism, the Background of Christianity, the Lost Library of Qumran*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4), 32.
- 16 예를 들어, 창세기 외경에서 노아의 출생은 신비롭게 묘사된다. 그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의 외모가 다른 인간과 달리 천사들과 더 비슷하다고 느끼고, 아내가 천사와 관계를

창세기 외경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계시를 받는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된다.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을 넘어서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맡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범위한 지역을 탐험하며, 후손들과 그들의 운명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 그의 경건함과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는 정경 창세기보다 더 강조되며, 정경 이야기를 확장하고 심화시킨다. 이를 통해 볼 때 제2성전 시대에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역할이 이미 확정되었고, 창세기 외경은 이를 강력하게 부각하는 중요한 텍스트였음을 알 수 있다. 창세기 외경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조우를 서술하는 장면에서 기본적으로 정경 텍스트를 따라간다.

1Q창세기 외경(1Q20) 22: 13-17¹⁷

13. 약탈 그리고 그를 만나러 올라갔다. 그는 살렘 즉, 예루살렘에 이르렀고(ואתה לשלם היא ירושלם), 아브람은 골짜기에 진을 쳤다.
14. 사웨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 벤학게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15. 아브람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그 자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는 아브람을 축복했다.

맺어 노아를 낳은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결국 라멕은 아버지 므두셀라에게 조언을 구하고, 노아가 특별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임을 확인한다. 이 점은 노아의 신성함과 그의 존재의 중요성을 더 부각하는 삽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홍수 사건 묘사에서도 창세기 외경의 노아는 방주에 탈 동물들을 위해 직접 기도하고,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다룬다. 또한 홍수 사건 이후에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라 루바르 산에 포도밭을 심는 장면과 후손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등의 묘사를 통해, 노아가 새로운 세계에서 삶을 준비하는 과정과 하나님의 지시를 더 적극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강조한다. 이처럼 창세기 외경에서 노아는 예언적 능력을 지닌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되고, 출생부터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여 그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7 1Q20(1QapGen ar), ed. M. Abegg (Cols. II-XXII) and M. Wise (Cols. 0-1) [DSSR 3, A. Rewritten Bible] Dead Sea Scrolls Electronic Library (Brill, 2016).

16. “아브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17. 네 대적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찬송을 받을지어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브람이 엘람 왕과 그의 동맹국에게 속한 모든 양 떼의 십일조를 그에게 바쳤다.

창세기 외경 22:13-17은 창세기 14:18b-19a 부분을 거의 문자 그대로 재서술한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 단락과 비교할 때 몇 가지 눈에 띄는 사항이 있다. 그중 하나는 살렘을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시편 76장 2절에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여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는 표현을 보면 적어도 시편이 정경화되는 무렵에는 이미 살렘과 시온을 동일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동일화를 상기하면, 창세기 외경이 기록된 기원전 1세기 말에는 살렘을 예루살렘과 연결하는 것은 이미 당연시되는 해석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두 텍스트 모두에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불린다. 살렘을 예루살렘으로 특정화한 것 외에도, 두 본문에서 차이점은 세 군데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창세기와 창세기 외경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내용상 두 텍스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창세기 14:19b

아브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ברוך אברם לאל עליון קנה שמים וארץ/바루크 아브람 레엘 엘리온 코네사마임 바아레쯔)

1Q20 22:16

아브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ברוך אברם לאל עליון מרה שמוא וארעא/바루크 아브람 레

www.kci.go.kr

두 텍스트의 차이점은 우리말로 각각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과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 번역된 단어가 각각 히브리어 קנה(코네)와 아람어 מרר(마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창세기의 קנה(코네)를 ‘창조주’ 혹은 ‘소유주’로 번역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¹⁸ 그런데 창세기를 다시 풀어 쓰는 창세기 외경에서 קנה(코네) 대신 מרר(마라)를 사용한 것은 신학적 의미가 있다. 즉, 고대 근동 서사시 어법에 기초한 קנה(코네) 대신에 주권과 통치자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מרר(마라)가 제2성전 시대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어휘였다.¹⁹ 이미 다니엘서 5:23에서 아람어 מרר-שמייא(마레-세마야)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제2성전 시대에 하나님을 ‘하늘의 주’로 표현하는 어법이 정립되어 가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고린도전서 16:22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μαράνα θά)²⁰라는 청유형 어법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어법을 근거로 신약시대에 이르러 초대 교회는 예수에게 마르(מר)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는 축언 중에 나타난다. 이 부분에서도 창세기와 창세기 외경에서 의미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단어만 다르다.

18 고대 근동 문헌과 비교해서 קנה(코네)의 의미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해밀턴, 윌글, 434-435. 해밀턴은 ‘창조주’의 의미를 지지한다.

19 아람어 용례에 대한 상세한 예시는 다음 아람어 사전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s://cal.huc.edu/> 아람어 מרר(마라)는 מרר(마라)의 이형(variant)으로 볼 수 있다. Edward M. Cook, *Dictionary of Qumran Aramaic* (Penn State Press, 2015), 147.

20 ‘마라나타’는 두 가지 독법으로 제시된다. 주요 사본(Nestle-Aland’s Novum Testamentum Graece 역본)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μαράνα θά)로 읽고, 일부 사본(Codex Vaticanus, Codex Cyprius, Codex Regius 등)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Μαράν ἄθα)로 읽는다.

창세기 14:20aα

네 대적을 네 손에 넘겨주신(בִּידֶךָ צָרִיךְ מִגֵּן/미겐 짜레이카 베야테카)

1Q20 22:17a

네 미워하는 자들을 네 손에 넣으신(בִּידֶךָ סָנַר שְׂנֵאִיךְ/디 싸게르 쓴 에이카 베야테카)

창세기 14:20aα에서는 동사 מִגֵּן(미겐)과 목적어 צָרִיךְ(짜레이카)를 사용하고, 창세기 외경에서는 동사 סָנַר(싸게르)와 목적어 שְׂנֵאִיךְ(쓴 에이카)를 사용한다. 창세기의 동사 מִגֵּן(미겐)은 ‘넘기다, 항복하다’(to handover, deliver)의 뜻으로 사용된다.²¹ 창세기 외경에서는 מִגֵּן(미겐) 대신 סָנַר(싸게르)를 사용하지만,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여기에 사용된 סָנַר는 아람어 파엘형으로 히브리어와 동일하게 ‘넘겨주다’는 뜻을 갖고 있다.²² 창세기 외경에서 목적으로 사용된 연계형 분사 형태 שְׂנֵאִיךְ(쓴에이카)의 어법을 구약성서에서 찾아보면, 개역개정에서 ‘미워하는 자’(신 30:7; 삼하 19:7; 대하 1:11; 욥 8:22)와 ‘원수’(시 21:9)로 번역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창세기와 비교해서, 창세기 외경은 십일조를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십일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개역개정은 창세기 14:20b에서 3인칭 단수 동사의 주어를 ‘아브람’으로 번역하지만,²³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3인칭 동사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21 이런 뜻으로 쓰인 예는 사무엘상 17:46; 24:19; 26:8에서 나타난다.
22 Fitzmyer, *윗글*(1966), 250. 아람어 파엘(pael)형은 히브리어 피엘형에 대응하며, 일반 동사의 강의형(intensive) 혹은 사역형(causative)의 의미로 사용된다. Miles V. Van Pelt, *Basics of Biblical Aramaic* (Zondervan, 2011), 131.
23 개역개정 창세기 14장 20b절은 주어와 목적어를 아브람과 멜기세덱으로 규정하여,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고 번역한다. 이런 번역은 히브리서 7장 6절(“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과 상응하도록 번역한 것이다.

보여주지 않는다.

창세기 14:20b

그가 그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주었다.(וּיִתֶן-לוֹ מֵעֶשֶׂר מִכָּל) / 바
이텐 로 마아세르 미콜)

1Q20 22:17b

그가 엘람 왕과 그의 동맹국에게 속한 모든 양 떼의 십일조를 그에게
주었다。(יְהַב לָהּ מֵעֶשֶׂר מִן כּוֹל נִכְסֵי אֵי מֶלֶךְ עֵילָם וְחַבְרוּהוּי) / 예
하브 라 마아세르 민 콜 니카시 디 멜레크 예일람 바하브로헤이)

창세기 14:20b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가 그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주었다”이다. 이문장에서 3인칭 동사의 주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십일조를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예를 들어, 스미스는 멜기세덱을 주어로 보고, 멜기세덱이 십일조를 준 이유는 아브람과 그의 군대에게 성읍을 떠나도록 뇌물을 주려는 시도였다고 추정한다.²⁴ 그러나 창세기 외경은 “그가 엘람과 그의 동맹군에 속한 모든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아브람이 전리품의 일부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창세기 외경에서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는 해석은 이미 제2성전기에 확립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히브리서 7장 6절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라는 후대 해석에 선행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24 R. H. Smith, “Abram and Melchizedek (Gen 14.18-20),”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77 (1965), 134.

4. 안식일의 노래(4Q401, 11Q17)의 멜기세덱

안식일의 노래(Sabbath Shirot; Songs of the Sabbath Sacrifice MasShirShabb)는 제4동굴에서 일곱 개 사본(4Q400-407)이 나왔고, 제11동굴에서 한 개의 사본(11Q17)이 나왔다.²⁵ 마사다에서도 이 노래의 사본이 발굴되었다.²⁶ 안식일의 노래는 1년의 첫 분기에 해당하는 13주의 안식일을 위한 13개의 노래로 구성된 예배용 텍스트이다. 각 안식일의 노래는 천상 성전과 천사들의 제사장직,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묘사하고 있다. 이 문서는 쿨란 공동체의 종교 생활에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예배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이라는 개념을 강화한다. 각 안식일의 노래는 제목과 낱말로 시작하며(예를 들어, “교관에게(לַמְשִׁכִּיל)/레 마스크일).²⁷ 첫 번째 달의 네 번째 안식일에 드리는 번째의 노래”), 뒤이어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이 나온다.²⁸ 일부 일인칭 복수형 표현을

25 4Q와 11Q안식일의 노래 각 사본의 영역과 연대 및 주석은 다음을 참조하라. C. A. Newsom, *Songs of the Sabbath Sacrifice: A Critical Edition* (Scholars Press, 1985).

26 Carol Newsom and Yigael Yadin, “The Masada Fragment of the Qumran Songs of the Sabbath Sacrifice,” *Israel Exploration Journal* 34 (1984), 77-88.

27 구약성서에서 마스크일(개역개정에서는 마스크일로 표기)은 ‘지혜로운 자’라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쿨란문서에서 마스크일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인물로 언급된다. 그는 공동체의 의식, 규율, 그리고 신앙적 가르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책임을 졌다. 마스크일의 역할은 영적 지도자이자 종교적 교관으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예배 방식과 규범을 전달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했다. 마스크일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Charlotte Hempel, “Maskil(im) and Rabbim: From Daniel to Qumran,” Charlotte Hempel, and Judith M. Lieu(eds.), *Biblical Traditions in Transmission. Essays in Honour of Michael A Knibb* (Brill, 2006), 133-156. 험펠에 따르면, 다니엘서 11-12장의 마스크일은 지혜로운 자들, 즉 종말적 위기 속에서 지혜를 가진 자들로 나타나지만, 쿨란문서에서 마스크일은 영적 지도자, 교관으로 묘사되며, 종말론적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8 현존하는 13개의 안식일의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노래는 천상의 천사 제사장직을 설명한다. 두 번째 노래는 손상이 심한 단락으로 인간 제사장직을 천사들의 제사장직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인간의 제사장직이 열등하다고 표현한다.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노래는 거의 완전히 손상된 단락으로 천국에서의 종말적 갈등을 다룬다. 여섯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노래들이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암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멜기세덱이 언급되는 4Q401과 11Q17의 안식일의 노래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Q안식일의 노래(4Q401)²⁹ 11:1-5

1.] 제사장[들
2. 지식의 [하]나님 그리고 [
3. 하나님의 [회]중에 있는 제사장 멜기[세덱]
4.] [비어 있음] [
5.] [비어 있음] [

뉴섬은 헤로디안 초기 서체를 근거로 4Q401의 연대를 기원전 25년경으로 추정한다.³⁰ 4Q401 11:3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회중에 있는 제사장”(מַלְכֵי עֶזְרָק כֹּהֵן בְּעֵרַת אֱל) /말케이 켈테크 코헨 바아다트 엘)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시편 110편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עַל-יְמִינֶךָ) /아도나이 알-에미네카)라는 표현과 맞닿아 있다. 4Q401 11:3 ‘하나님의 회중’(מַלְכֵי עֶזְרַת אֱל) /바아다트 엘)과 동일한 표현은 구약성서에서는 시편 82:1에 단 한 번 등장한다.³¹ 유사한 표현으로 ‘아웨

번째 노래는 일곱 명의 주(主)천사들이 찬양하고 축복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일곱 번째 노래는 천사들과 성전 안의 생명 있는 성물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그린다. 여덟 번째 노래는 여섯 번째 노래와 상응하는데, 일곱 명의 부(副)천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찬양한다. 아홉 번째에서 열한 번째 노래는 성전의 현관과 통로를 통과하며, 그 안에 새겨진 신들과 불의 강들을 지나가게 된다.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보이며, 그 휘장에는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새겨져 그들도 찬양에 참여한다. 열두 번째 노래는 특히 하나님의 병거(메르카바)의 장엄함을 묘사한다. 열세 번째 노래는 천상의 제사를 주관하는 천사 대제사장들의 의복을 설명하며, 노래가 마무리된다. James R. Davila, *Liturgical Works* (Wm. B. Eerdmans, 2001), 84.

29 Newsom, *윇글*(1985), 133.

30 Newsom, *윇글*(1985), 126.

31 개역개정은 “신들의 모임”으로 번역한다.

의 회중’(יהוה בערת / 바아다트 야웨)은 민수기 11:36과 여호수아 22:17에 나온다. 시편에 나오는 또 다른 유사 표현은 시편 1:5의 ‘의인들의 회중’(בערת צדיקים / 바아다트 짜디킴)이다.

‘하나님의 회중’(אל בערת / 바아다트 엘)이라는 표현은 원래 고대 근동에서 기원한 것이다.³² 그런데 이사야 소명 장면(사 6장)을 통해 볼 때, 신들의 천상 의회 장면은 구약성서 시대 이스라엘에서도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사야 소명 장면에서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사 6:1), 여섯 날개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다. 욥기 1장 6절에서도 천상 의회 장면이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 체계에 따르면, 천상 보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곳이 아니라, 여러 다른 천상적 존재와 함께 있는 곳이었다. 이런 관념 체계 안에서 시편 110편 1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의 우편에 앉으라”(שב לימיני / 셰브리미니)고 명령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또한 천상 의회에서 신적 판결이 일어나는 모습 역시 시편 82편과 우가릿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³³ 우가릿 텍스트와의 차이점은 시편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고 궁극적인 주권자로 강조한다는 점이다. 4Q401 11:3의 “하나님의 회중에 있는 제사장 멜기세덱”은 시편 82:1에서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심판자로서 있는 모습과 연결되며, 시편 110편에서 열방을 심판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멜기세덱-다윗 왕의 모습과 연결된다. 그러나 안식일의 노래에서는 멜기세덱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던 다윗

32 Michael S. Heiser, *The Divine Council in Late Canonical and Non-Canonical Second Temple Jewish Literature*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4). 기민석, “천상의회의 전형적 기술에 대한 관찰,”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31(2005), 15-26.

33 기민석, “시 82편: 우가릿의 목소리, 이스라엘의 노래,” 『구약논단』 6(2009), 111-130.

을 상징하는 존재를 넘어, 스스로 천상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위치하게 된다. 이제 멜기세덱은 다윗이 매개로 삼았던 표상적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이 천상적 존재 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다.

11Q안식일의 노래(11Q17)³⁴ 2:4-7

4. [교관에게. 제] 여덟 번째 [안식일 희생 제사의 노래, 둘째 달 제 23일. 모든 높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룩한 모든 자들아, 세세토록]
5. [내부 성소의 제사장들 가운데 두 번째, 일곱 가운데] 놀라운 거처 [중에 있는 두 번째 모임, 영원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진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고 그를 높이 찬양하라, 너희 우두머리들이여,]
6. [그의 놀라운 뭇을 가진 군주들의… 신들 중의] 신을 [찬양하라. 그의 내부 성소의 너희 일곱 높은 제사장들아, 일곱 놀라운 영토들, 규례에 따라,]
7. [그의 성소 중에서. 놀]라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지닌 군주들의 우두머리들이여,]

11Q안식일의 노래는 초기 헤로디안 서체에 근거하여 대략 기원전 30년에서 서기 50년경 사이에 기록된 문서로 보인다.³⁵ 이 문서는 훼손 정도가 매우 심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복원하기 어렵다. 이 텍스트에서 훼손되지 않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단어는 ‘여덟 번째’와 ‘놀라운 거처,’ ‘신,’ 그리고 ‘놀라운 멜기세덱’ 정도이다. 마르티네즈는 이 텍스트를 4Q403 1 ii 18-21과 4Q405 8-9:1-6과 비교하여 훼손된 부분

34 F. García Martínez, E. J. C. Tigchelaar, and A. S. van der Woude,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volume 23: Qumran Cave 11.II: 11Q2-18, 11Q20-30* (Clarendon Press, 1998), 270.

35 윗글, 263.

을 복원하였다.³⁶ 마르티네즈의 복원에 따르면, 이 텍스트는 성서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천사들이 여덟 번째 안식일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훼손이 심하지만, 이 찬양에서 ‘놀라운 멜기세덱’이라는 표현은 선명하게 남아있다.

5. 11Q멜기세덱(11Q13)³⁷의 멜기세덱

11Q멜기세덱 초판 편집자인 반 데르 우데(van der Woude)는 이 문서의 저작 연대를 서기 1세기 초반으로 보았다.³⁸ 그러나 이후 대부분의 학자는 헤로디안 서체에 근거하여 기원전 50-25년경 저작으로 판정하였다.³⁹ 이 문서는 주제에 따라 성서 본문을 인용하고 주석을 다는 방식의 ‘주제적 페세르’ 형식의 텍스트이다.⁴⁰ 이 문서는 하스몬 왕조 후반기 또는 헤롯 왕조 초기(기원전 50-2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1Q멜기세덱 문서 중 가장 잘 보존된 제2단은 더 큰 역사적 비전을 설명하는 부

36 윗글, 269.

37 윗글, 207-220.

38 A. S. van der Woude, “11QMelchizedek and the New Testament,” *New Testament Studies* 12 (1965-66), 301-26.

39 예를 들어, Paul J. Kobelski, *Melchizedek and Melchirešac* (Wipf and Stock Publishers, 1981), 3. Crispin Fletcher-Louis, “Melchizedek,” Lawrence H. Schiffman and James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1* (1st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544-547.

40 페세르는 쿵란문서의 주석서라 할 수 있는 문학 양식으로 성서 본문을 해석하고 주석한다. 장 카흐미냐크(Jean Carmignac)는 쿵란 페세르를 ‘계속적 페세르’(*pesher continu*)와 ‘주제적 페세르’(*pesher thématique*)로 나뉜다. 각각의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Timothy H. Lim, *Pesharim*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특히 2, 3장. 그런데 쿵란 문서의 페세르 장르는 일반적인 주석서가 아니라, 쿵란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배경으로 삼아 공동체에 적대적인 무리들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주관적 해석서라 할 수 있다.

분으로 보이며, 이는 열 번의 회년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다(11Q13 2:7). 이 문서에서 한 단의 텍스트는 보통 세 부분으로 나뉘며, 각 부분은 성서 본문 인용과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 성서 인용에서 해석으로의 전환은 **רַבִּישׁ**(피쉬로)라는 기술적 용어로 표시되며, 제2단에서 네 번 나오지만,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첫 세 번만 고려된다.

이 문서는 멜기세덱과 벨리알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이 문서의 단편들에서 멜기세덱의 인간적 기원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그는 제사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멜기세덱은 개인이 아니라 일단의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로 등장한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는 ‘멜기세덱의 기업,’ ‘멜기세덱의 뭉,’ 그리고 ‘멜기세덱과 그의 군대’와 같은 용어가 눈에 띈다. 멜기세덱은 전사 천사, 즉 엘로힘으로 나타나며, 그는 종말에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제사장적 역할은 암시되어 있다. 즉, 멜기세덱의 뭉이 열 번째 회년에 속하는 속죄일이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고려하면, 천상적 제사장 역할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남아있는 단편들의 전체적인 내용은 비록 언어적으로 시편 110과 일치하지 않지만, 천상적인 존재이자 제사장이라는 사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1Q13(11QMelch) Col. II (Frgs. 1, 2 i, 3 i, 4)

2. [] 그리고 그가 말한 것에 관해서는 “[이] 회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레 25:13)라고 말씀하셨다.
3.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4.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신 15:2). [그 해석은] 마지막 날의 포로

들에 관한 것이다. []와 []

5. 교관들은 숨겨져 있고 비밀로 유지되었다. 멜기세덱의 기업에서, 왜[나하면] 그리고 그들은 멜기세덱의 기업이요.
6.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의 빛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어날] 것이다.
7. 아홉 번째 회년이 지난 (회년의) 첫 주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속죄일은 열 번째 [주] 회년의 마지막 날이다.
8. (그날에) 모든 [빛의] 아들들과 멜기세덱의 몫을 위하여 그들의 [행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9. 기록된 대로 이날은 멜기세덱과 [그의]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나라], 공의로 다스리는 자의 은혜의 해를 위한 시간이다.
10. 다윗의 노래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시 82:1). 그리고 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11.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시 7:8-9), 그리고 그가 말[한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낮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시 82:2).
12. 그것의 해석은 벨리알과 []하는 그의 몫의 영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떨어져]서 악을 저지르는 []
13. 그리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심판의 복수를 수행할 것이요. [그날에 그는] 벨리알의 손과 그의 [몫의 모든 영]의 손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14. 그리고 모든 [정의의] 신들이 그를 도우며, [그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을 []이요 그는 [] 할 것이다.
15. 이 []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평강의] 날이니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16.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사 52:7).

www.kci.go.kr

17. 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산’은 선지자(들)이다. 그들은 [] 모든 []이다.
18. 그리고 다(니엘)이 [그에 대해] 말한 것처럼 ‘전하는 자’는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단 9:25)이다. 그리고
19. 구원을 선포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기록된 사람에 대한 것이다.
20.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사 61:2). 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세상의 모든 시대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21. 진실로 [] []
23. [] 그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니,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사 52:7) “시온”은
24. 언약을 세우고 열방의 길을 걷지 않는 [모든 정의의 아들들의 회중]이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은
25. 멜기세덱은 벨리알의 손에서 [그들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너희는 []의 땅에서 나[팔]을 볼 것이다.

위 단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오경, 시편, 그리고 이사야와 다니엘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첫 단락(2:2-9)은 시기적으로 종말과 멜기세덱의 등장이라는 맥락에서 회년(레 25:13)과 면제년(신 15:25)에 관한 율법의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이 단락에서는 회년과 면제년 규정을 ‘포로’의 해방과 귀환을 의미하는 ‘종말론적’ 회년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⁴¹ 이 해석을 듣는 이들은 자신들을 여전히 ‘포로’(מִשְׁבִּיעַ/하세부임)라고 인식한다. 여전히 포로 된 그들에

41 콜린스는 11Q13을 묵시문학 장르로 분류하고, 이 문서의 회년 해석을 ‘종말론적 회년’으로 칭한다. J. J. Collins, “Apocalypticism in the Dead Sea Scrolls,” P. W. Flint and J. C. VanderKam, John J. Collins(eds.), *The Dead Sea Scrolls After Fifty Years: A Comprehensive Assessment 2* (Brill, 1999), 423.

게 자유가 선포되고,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 일은 열 번째 회년의 첫 번째 주간에 일어난다. 또한 ‘포로’ 정체성과 연결해서 쿰란 공동체는 그들이 ‘광야’에 유배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광야에 살고 있다는 관념은 쿰란문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QS 8:13에서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타락한 자들의 모임에서 분리되어 광야로 나아가, 그곳에서 진리의 길,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1QM 1:3에서도 “그들은 백성들의 광야에서 예루살렘의 광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였다”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쇼필드(Schofield)는 쿰란 공동체를 “광야에 있는 이질적 공간(heterotopia)”으로서 “제사장의 대체 공간”이라고 제안하였다.⁴² 그런데 포로로 살아가던 쿰란 공동체는 열 번째 회년의 끝에 속죄의 날이 오고, 이날이 멜기세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는 ‘멜기세덱의 은총의 해’(לשנת הרצון למלכי צדק)/레사나트 하라쎌 레말케이 켄데크)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이 은총의 해(לשנת הרצון)의 도래 기대를 종말론적 희망으로 읽을 수 있다.⁴³

광야에서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는 쿰란 공동체는 11Q멜기세덱에서 자신들을 ‘멜기세덱의 기업’(מנחלת מלכי צדק/미니할트 말키이 켄데크), ‘멜기세덱의 뭉’(צדק) [מלכי] [גורל מלכי] [אנשי] /안셰이 고랄 말키이 켄데크), ‘멜기세덱과 [그의] 군[대]’(צדק ולצבאו) /말키이 켄데크 우르쓰바아브)라고 지칭한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들은 구약성서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으나, 쿰란문서에서는 종파적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גורל(고랄)은 구약성서에서 주로 제비뽑기를 통해 정해진 뭉이

42 A. Schofield, “Re-Placing Priestly Space: The Wilderness as Heterotopia in the Dead Sea Scrolls,” E. F. Mason, et al. (eds.), *A Teacher for All Generations: Essays in Honor of James C. VanderKam* (Brill, 2011), 469-490.

43 조명기, “쿰란 공동체의 종말론적 자기이해,” 『구약논단』 22 (2006), 115-128.

나 분깃(레 16:8; 민 26:55; 시 22:18 등)을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이 단어가 하나님의 몫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렘 13:25; 시 16:5). 그러나 쿰란문서에서는 이 단어가 외부인과 쿰란 공동체를 구분하는 집단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⁴⁴ 1QS 2:2에서 גורל을 “אנשי גורל אל ההולכים המים בכול דרכיו”(안세 이 고랄 엘 하홀킴 타뫼 베클 데라카브/ 그의 모든 길에서 온전하게 걷는 자들의 운명을 지닌 자들)라고 정의 내린다. 여기서 גורל은 단순한 몫이나 분깃을 넘어,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몫으로 결정된 ‘운명’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된다.⁴⁵

바로 다음 단락에서 쿰란 공동체에게 다가올 구원은 심판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두 번째 단락(2:10-14)은 시편 82편 1-2절과 7편 8-9절을 인용하는데, 이 구절은 모두 심판(טפף/샤파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11Q멜기세덱은 이 심판을 멜기세덱이 집행할 최후의 심판으로 언급하며, 이를 ‘보복’(קום נקם)/야쿰 나캄이라고 규정한다. 이제 벨리알과 그의 무리는 심판을 받고, ‘빛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시기가 온다. 쿰란문서는 그들이 벨리알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시대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전쟁문서(1QM)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문서에 따르면, ‘빛의 자녀’는 벨리알이 이끄는 ‘어둠의 자녀’와 그들의 연합군(예돔, 모압, 암몬, 블레셋, 갓밌, 계약을 위반한 자들)과 총 일곱 차례의 최후 전쟁을 치른 끝에 최종적으로

44 쿰란 종파문서에서 גורל은 111회 등장한다. Francis Schmidt, “Goral versus Payis: Casting Lots at Qumran and in the Rabbinic Tradition,” Florentino Garcia Martinez and Mladen Popovic (eds.), *Defining Identities: We, You, and the Other in the Dead Sea Scrolls* (Brill, 2007), 176에서 재인용.

45 Ludwig Koehler, Walter Baumgartner, and Johann Jakob Stamm.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Translated and edited under the supervision of M. E. J. Richardson. 5 vols. (Brill, 1994-2000), s.v. “גורל.”

승리를 거두게 된다.⁴⁶

세 번째 단락(2:15-25)은 최후 심판 이후 도래할 마지막 열 번째 희년에 이루어질 평화와 구원의 시대를 예언한다. 이 단락에서는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며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2:18)로 해석한다. 이어서 다니엘 9장 25절을 인용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다시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멜기세덱이 대리자로서 의의 자녀를 벨리알의 손길에서 구출하는 내용을 강조한다. 현재 남아있는 마지막 구절은 레위기 25장 9절을 인용하며 속죄일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된다.

6. 결론

본 논문은 구약성서에서 신약성서에 이르기까지 멜기세덱 전승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창세기에서는 멜기세덱이 역사적 인물로 등장하지만, 시편에서는 상징적 인물로 변모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적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천상적 인물로 재해석된다.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본 논문은 멜기세덱 전승의 획기적 전환기로 평가되는 제2성전 시대의 문헌인 쿵란의 멜기세덱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멜기세덱 전승의 변화와 발전의 단초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창세기 외경(1Q20)을 검토하였다. 이 문헌은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 서사를 재구성하며, 그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명시하고, 아브람과의 만남에서 신적 축복을 전달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제2성

46 이윤경, “쿵란 전쟁문서(1QM)의 세계관,” 『구약논단』, 28/4(2022), 129-158.

전 시대에 멜기세덱이 단순한 왕이자 제사장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중재하는 중요한 인물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 대상인 안식일의 노래(4Q401, 11Q17)에서는 멜기세덱이 천상적 제사장으로 묘사되며, 하늘 성소에서 신적 예배를 주관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이 문헌은 멜기세덱을 하늘의 회중 가운데 위치시키며, 그를 인간 제사장의 범주를 넘어서는 천상적 존재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쿰란 공동체가 멜기세덱을 구원과 심판을 이끄는 신적 중재자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1Q멜기세덱 문서는 멜기세덱을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중심인물로 묘사하며, 벨리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는 메시아적 역할을 부여한다. 이 문서는 멜기세덱을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전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적 존재로 그리며, 종말의 때에 구원자이자 심판관으로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쿰란문서에 나타난 멜기세덱 표상을 분석하여, 멜기세덱 전승이 구약의 역사적 왕에서 신약의 기독교론적 제사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천상적이고 종말론적인 표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구약성서에서 구원과 심판의 인물로 등장한 멜기세덱은 쿰란문서에서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의 중심인물로 해석되었으며, 이러한 해석이 신약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정우, “창세기 강해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과 족장 아브라함의 만남(창 14:18-20),”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33(2006), 84-87.
- 마르티네즈, F. E. 티그셀라아르, 『사해문서 1~4권』 (강성렬 옮김). (나남, 2008).
- 빅터 해밀턴, 『창세기 1』 (임요한 옮김). (부흥과개혁사, 2016).
- 송창현, “쿰란 사본과 성서 연구,” 『성경원문연구』 16(2005), 7-38.

- 이윤경, “쿰란 전쟁문서(1QM)의 세계관,” 「구약논단」, 284(2022), 129-158.
- 조명기, “쿰란 공동체의 종말론적 자기이해,” 「구약논단」 22(2006), 115-128.
- 하경택, “제사장-왕’을 통한 야훼의 통치,” 「구약논단」, 234(2017), 150-182.
- Collins, J. J., *The Scepter and the Star* (Wm. B. Eerdmans, 1995).
- Crawford, Sidnie White., *Rewriting Scripture in Second Temple Times* (Wm B. Eerdmans Publishing, 2008).
- Cross, F. M., “The Development of the Jewish Scripts,” G. E. Wright(ed.),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Essays in Honor of William Foxwell Albright* (Doubleday, 1961), 133-202.
- Davila, James R., *Liturgical Works* (Wm. B. Eerdmans, 2001).
- Delcor, M., “Melchizedek from Genesis to the Qumran Texts and the Epistle to the Hebrews,”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2 (1971), 115-35.
- Fitzmyer, J. A., “Further Light on Melchizedek from Qumran Cave 11,”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6/1 (1967), 25-41.
- _____, “Melchizedek in the MT, LXX, and the NT,” *Biblica* 81 (2000), 63-69.
- _____, *The Genesis Apocryphon of Qumran Cave 1 (1Q20)* (Gregorian & Biblical Press, 2004).
- Flint, P. W. J. C., VanderKam, and John J. Collins(Eds.), *The Dead Sea Scrolls After Fifty Years: A Comprehensive Assessment 2* (Brill, 1999).
- Gammie, John G., “Loci of the Melchizedek Tradition of Genesis 14:18-20,”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0/4 (1971), 385-96.
- Horton, F. L., *The Melchizedek Tradition: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Sources to the Fifth Century A.D. and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Johnson, Luke Timothy., *Hebrews: A Commentary* (Presbyterian Publishing Corp, 2006).
- Kobelski, Paul J., *Melchizedek and Melchirešac* (Wipf and Stock Publishers, 1981).
- Liver, J. “The Doctrine of the Two Messiahs in Sectarian Literature in the Time of the Second Commonwealth,” *The Harvard Theological Review* 52/3 (1959), 149-85.
- Martínez, F. García, E. J. C. Tigchelaar, and A. S. van der Woude(Eds.),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volume 23: Qumran Cave 11.II: 11Q2-18, 11Q20-30*. (Clarendon Press, 1998).

- Newsom, C. A., *Songs of the Sabbath Sacrifice: A Critical Edition* (Scholars Press, 1985).
- Schiffmann, Lawrence H., *Reclaiming the Dead Sea Scrolls: The History of Judaism, the Background of Christianity, the Lost Library of Qumran*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4).
- Schiffman, Lawrence H(ed.),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2 Vol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Smith, R. H., “Abram and Melchizedek (Gen 14,18-20),”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77 (1965), 129-152.
- Avigad, Nahman and Yadin, Yigael, *A Genesis Apocryphon: A Scroll from the Wilderness of Judaea*, (The Magnes Press, 1956).
- Zimmerman, J., “Observations on 4Q246 - The ‘Son of God’”, J. H. Charlesworth, H. Lichtenberger, and G. S. Oegema(eds.), *Qumran-Messianism: Studies on the Messianic Expectations in the Dead Sea Scrolls* (Mohr Siebeck, 1998), 175-190.

검색어

사해문서, 쿨란, 창세기 외경, 멜기세덱, 종말론, 안식일의 노래

[ABSTRACT]

A Study of the Traditions of Melchizedek in the Dead Sea Scrolls

Yoon-Kyung Le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tradition of Melchizedek from his initial historical appearance in the Old Testament to his depiction in the Qumran Scrolls and the New Testament. In Genesis 14, Melchizedek is introduced as the historical king and priest of Salem who blesses Abram after a victorious battle. This brief yet significant encounter presents Melchizedek as a figure connected to both royalty and priesthood, titles that hold theological significance in later interpretations. By the time we reach Psalm 110, Melchizedek has transformed from a historical figure into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King David, portrayed as a priest forever in the order of Melchizedek, sitting at God's right hand. The New Testament, particularly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elevates this transformation further by depicting Melchizedek as a typology of Christ, whose eternal priesthood supersedes that of the Levitical order.

The Qumran Scrolls play a crucial role in bridging the Old and New Testament perceptions of Melchizedek. Documents such as the Genesis Apocryphon, Songs of the Sabbath Sacrifice, and 11QMelchizedek present Melchizedek in a more eschatological and celestial context. In these texts, Melchizedek takes on a role beyond that of a historical king and priest; he is portrayed as a heavenly figure, one who presides over

www.kci.go.kr

divine judgment and is associated with the ultimate redemption of God's people in the eschaton. In particular, 11QMelchizedek describes him as a messianic figure who will defeat the forces of evil, represented by Belial, and bring about the year of God's favor, thus fulfilling an essential role in the apocalyptic expectations of the Qumran community.

This study traces the development of the Melchizedek tradition through various phases: from his depiction as a historical figure in Genesis, to a symbolic king-priest in the Psalms, and finally to a messianic and priestly figure in the New Testament and Second Temple Jewish texts. By examining these texts, the paper demonstrates how the understanding of Melchizedek evolved over time,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eternal priesthood and eschatological salvation, and how these developments influenced early Christian theology, particularly in the understanding of Christ's priesthood. The research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Melchizedek in the theological and eschatological imagination of both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underscoring his role as a bridge between the two Testaments and as a central figure in discussions about messianism and divine intervention in the history of salvation.

key words

The Dead Sea Scrolls, Qumran, Genesis Apocryphon, Melchizedek, Songs of the Sabbath Sacrifice

투고일 : 2024년 10월 22일

심사일 : 2024년 11월 10일

게재 확정일 : 2024년 12월 02일

www.kci.go.kr